

# 화장실은 문화의 척도이자 공동체의식의 척도



글\_심재철 (국회의원)

가깝지만 멀게 느껴졌던 화장실의 문제는 우리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드러내놓고서는 할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지저분하면 지저분한대로 잠시 스쳐가는 공간 정도로 여기면서 불편함을 '잠시 참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화장실의 문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며, 마치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상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막상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들의 화장실이용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한 후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화장실은 단순하게 잠시 스쳐 지나갈 공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여성이용자들의 불편만을 생각한다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사용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소변기의 합비의 비율이 남녀 1: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변기만 보더라도 1:1.2에 불과하여 이상과 실천간의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고 그렇다고 일시에 모든 화장실을 고칠 정도의 국가재원이 풍족한 상태도 아닙니다.

## 화장실관련법 정비가 필요

어려움은 화장실관련 책임부처의 선정문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의 공약실천을 위하여 처음 접한 화장실관련 규정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고, 관련 부처 또한 다른 부처의 업무라는 이유로 기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관련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인정하고 개정을 약속한 부처까지도 우리부처가 먼저 고치면 우리업무가 된다는 식의 복지부동으로 다른 부처가 먼저 개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있고, 규제권이 있는 것이라면 서로 앞다투어 자신의 업무를 주장하면서 양보할 줄 모르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힘든 일인니까 그러겠지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노력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덮어두고만 있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생각을 고치는 일, 새로운 마인드로 화장실을 바라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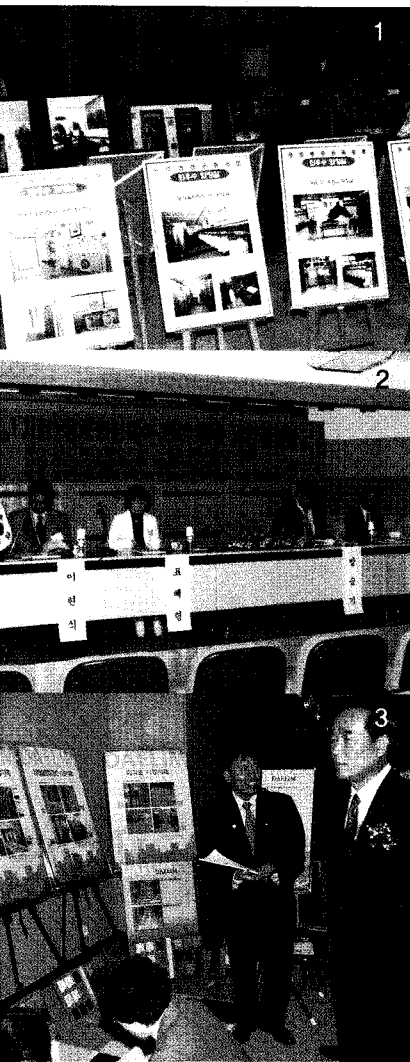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 및 관련용품 전시회에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화장실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며 우리 공동체의식을 재는 척도입니다.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한 공간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 및 응품 전시회
2.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제정공청회(1차)
3. 화장실 응품 전시회에서 설명 중.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그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마인드로 바라보아야 할 화장실은 새로운 법률체계를 가져야 하고 숨겨져 있던 30여개 법률에 산재한 규정을 통일된 단일법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화장실은 우리의 숨겨져 있던 뒷간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해우소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을 통하여 불편함이 발생하면 호소할 수 있고,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나서서 고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 나의 작은 배려 아름다운 화장실의 시작입니다

화장실은 우리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고, 우리 삶의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또 우리사회 공동체의식의 척도를 재는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뒷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지지분하게 사용하는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면 사회의 공동체의식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 앞선 사람이 뒷사람을 생각하여 깨끗하게 사용한다면 그 뒷사람은 또 뒷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화장실은 문화의 척도이자 사회의 공동체의식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공중화장실법안 제정과정에서 찾은 보람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누구나 그냥 지나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일면은 거칠고 난폭해도 또 다른 일면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 회원들에게 이 글의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